

# 住居建築物의 騒音防止策

金 文 塚 国立建設研究所 建築基準科

## 目 次

1. 序 文
2. 基礎知識
  - 2.1 音
  - 2.2 騒音과 騒音源
  - 2.3 音과 人間의 聽覺
  - 2.4 音의 感覺量과 單位
  - 2.5 建築의 音響設計와 騒音防止設計.
3. 遮音과 騒音防止의 通則
  - 3.1 吸音과 吸音材
  - 3.2 遮音
  - 3.3 騒音調整의 通則
4. 外部騒音의 防止策
  - 4.1 外部騒音의 行態
  - 4.2 外部騒音의 防止策
5. 内部騒音의 防止策
  - 5.1 内部騒音의 行態
  - 5.2 内部騒音의 防止策
    - (1)平面計画 (2)窓 (3)間 (4)壁 (5)바닥
    - (6)설비계통의 소음 (7)조합한 시공으로 인한 방음 성능의 감소.
6. 結 言

## 1. 序 文

近年의 급속한 產業化, 都市化에 따른 公害問題는 繫急한 社會問題로 등장하여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公害라 하더라도 그 種類, 範圍는 多種多樣하나 그 주된 現象을 보면 大氣의 汚染, 水質의 汚濁, 騒音, 振動, 地盤波下 惡臭等이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公害는 여러 가지 樣態를 나타내면서 우리의 生活環境을 侵害하여 가고 있다. “조용한 거리”,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平和스러운 住生活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騒音은 振動, 惡臭등과 함께 소위“感覺公害”이므로 그 影響을 명확하게 把握하기가 困難하고 發生源에 對한 防止技術의 開發이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에 문제가 된 것으로 都市公害中에서도 직접적인 被害를 住民에게 주고 있다.

이러한 騒音公害는 地域社會의 近隣關係의 事例, 住居와 工場의 混在에서 오는 紛爭, 空港周辺地域에서의 障害等 多種多樣하다. 騒音公害의 特色은 工場, 事業場만이 아니고 各種의 公共事業, 예를 들면, 道路, 鉄路, 空港의 建設 및 利用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그 解決을 위해서는 發生源에 대한 規制의 強化 만으로는 불충분하고 發生源 周辺의 土地利用規制等도 필요할 것이다.

또, 都市에로의 人口過剩集中으로 야기된 심각한 住宅難을 해결하고, 國土空間의 效率적 이용 및 都市土地의 高度利用이라는 견지에서 세워진 아파트에서의 内部騒音도

「삶의 보금자리」로서의 住宅의 機能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騒音問題는 우리 建築家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한번쯤 생각하고 넘어 가야 할 것이다.

## 2. 基礎知識 2.1 音

일반적으로 音(sound)이란 空氣中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波動을 인간의 聽覺을 통해서 느끼는 感覺이다. 이러한 波動, 즉 音波는 임의의 振動體에서 여러 가지方法(衝突이나 振動)으로 發生되어 順次의으로 인접한 粒子에 전달되며 氣体의 성질상 空氣粒子 자체의 振動方向과 伝達方向이一致하는 縱波이다.

이러한 波動의 한 단위를 週波라 하고, 일초 동안의 주파의 수를 週波数 또는 振動數라 하며 이는 音의 높이를 나타낸다. 또 파동의 봉우리와 봉우리사이의 거리를 波長이라 한다.

## 2.2 騒音과 騒音源

여러가지 發生源에서 나는 音도 인간의 存在를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한 物理現象으로 볼 수 있고 인간의 귀에 들리는 音에도 生活上 不可欠의 音과 없는 것이 바람직한 不必要한 音이 있다. 騒音이란 이러한 不必要한 音, 즉 인간의 활동에 방해가 되는 듣기 싫은 音, 들리지 않은편이 나온 音을 말한다. 이에는 지나치게 높은 音音色이 不快한 音, 通話를 방해하는 音, 정신력의 集中이나 安眠을 방해하는 音 等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音의 不必要性에 대해서는 音을 듣는 当事者가 判斷해야 할 문제로서 때와 장소 사람에 따라 다르다. 騒音源에는 일반적으로 都市騒音, 交通騒音, 工場騒音, 工事騒音 등과 같이 건물 밖에서 나는 外部騒音과 設備騒音, 生活騒音等과 같이 건물 내부에서 나는 内部騒音으로 大別된다.

①都市騒音이란 交通騒音等과 같은 여러 가지 騒音이 混然一体가 된 것으로 建物의 種別이나 密度, 人口와 交通量等과 관계가 있고 時刻의으로 变化하는 低周波成分이 많은 騒音이다.

②交通騒音에는 自動車, 鐵道, 航空機等에서 나는 騒音이 있고 이 中에서도 自動車에서 나는 騒音이 最惡의 것으로 交通量, 車速, 車種 道路狀況, 道路에서의 距離에 따라 그 程度가 다르다.

③工場騒音은 業種別, 機械別에 따라 다르나 24 時間運転하는 것 特異한 音色을 가진 것 住宅地에 混在하고 있는 것등이 문제가 된다.

④工事騒音은 一時의인 것이긴 하나 地域이 限定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夜間工事等에서 문제가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은 말뚝박기, 리벳트 치기, 막사, 콤프레샤등이다.

⑤設備騒音에는 送風機, 보일러, 冷凍機, 냉蔵庫, 펌프등의 空調機器等은 물론 給水音, 排水音等도 문제가 되고 있다.

⑥生活騒音에는 인간 또는 동물의 소리, 라디오, 텔레비

죤, 악기의 소리, 사무기기의 소리, 바닥충격음이나 문의 충격음등의 固體伝搬音이 있고 後者는 아파트등에서 큰 문제로 되고 있다.

## 2.3 音과 人間의 聽覺

人間은 聽覺器官으로 音을 듣고 刺激에 따라 육체적 혹은 生理的인 影響을 받아 여러 가지 情報를 知覺하고, 여러 가지 心理的 表象을 나타내는 반면 역으로 声帶나 입 혹은 拍手 혹은 藥器等으로 音을 내어 情報等을 伝達한다고 하는 두 가지 側面을 가지고 있다.

人間의 聽感覺器官은 耳介, 外耳道, 鼓膜, 耳小骨 蝶午, 聽神經으로 이루어져 있어 空氣의 振動, 液體의 振動, 神經電流와 어느 程度 周波数의 分別등을 膜의 振動, 骨의 振動을 하면서 順次의으로 變換하여 音의 感覺을 얻게된다. 人間의健全한 귀로 들을수 있는 것은 振動數(周波数)에서 약 20~20,000 回秒(%) 音圧에서 약 0.0002~200 마이크로바( $\mu\text{bar}$ )이다.

※ 1 気圧=約 1 bar=1.000  $\mu\text{bar}$ = $10^6 \mu\text{bar}$

## 2.4 音의 感覺量과 單位

인간이 音으로 부터 一次의으로 얻어지는 感覺量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크기 : 基本의으로 音圧에 對應하나 周波数에 따라서도 大幅의으로 變하는 感覺量이다. 크기를 定量的으로 表現하는 量으로서 音의 크기의 레벨(LL, Loudness Level : 어떤 音의 크기를 그것과 같은 크기로 들리는 1.000 Hz 純音의 音圧레벨의 값으로 表示한 것 단위 : phon), 音의 크기 (Loudness : 音의 크기의 레벨을 40phon을 1로하여 感覺의으로 같은 등급의 값으로 나타낸 것 단위 : sone 대략 10phon이 증가함에 따라 sone의 값은 2倍가 되고 数值의 加減值가 그대로 減覺量의增減에 對應한다.) 等이 있다.

②높이 : 주로 周波数에 依存하고 周波数가 많으면 높게 들리는 量이고 基本의으로는 感覺量의 差가 周波数의 比에 對應한다.

③音色 : 音의 周波数 패턴과 時間의 패턴에 따라 變化하는 量으로 세기와 높이가 같더라도 純音과 樂器의 音에는 周波数成分이 다르고 純音과 短音 혹은 白色雜音과 競技用 피스톨등의 衝擊音은 繼續時間의 차이로 다른 音色을 나타낸다.

④데시벨 (Decibel : dB) : 소리의 세기 또는 높이의 변화에 대한 인간의 느낌을 근사하게 나타내는 단위로 데시벨 (dB)이 있다. 우리가 可聽할 수 있다는 것은 音圧의 절대적 차이보다는 상대적인 변화 때문이다. 音圧레벨 단위에서 0은 극히 조용한 실험실에서 可聽할수 있는 최저한도에 대략 맞추어서 입의로 정한 것이고 대개는 조용한 상태라 하더라도 적어도 10~15dB 보통 30~40dB의 기본 소음을 들 있게 마련이다. 대화소리는 대략 70dB정도이며 宴会等에서는 85dB 정도이며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선은

130dB정도이다. 聽小骨이 파괴되는 소음의 크기는 직접 사람을 실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동물실험 또는 사고를 당한 사람들로부터 調査한 바에 의하면 大략 150 dB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5 建築의 音響設計와 騒音防止設計

많은 音中에서 듣고 싶은 音은 보다 잘 들리게 하는 것을 音響設計라 하고 듣기 싫은 音은 될 수 있는한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을 騒音防止設計라 한다. 이는 建物의 立地条件, 건물의 配置, 室의 配置, 形, 크기, 천정이나 벽 등 各部의 構造, 材料, 室內의 家具 및 그 配置와 人間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관계가 있으므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3. 遮音과 騒音防止의 通則

### 3.1 吸音과 吸音材

音波가 投射되는 面의 性質에 따라 音의 吸收程度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굳고 단단하거나 剛한 面은 거의 吸音이 되지 않는 반면 연한 多孔質面과 振動할 수 있는 材料는 音을 더 많이 吸收한다. 音의 에너지가 흡수되면 매 우적은 热量이긴 하지만 热에너지로 전환된다. 音波가 부딪침으로 인하여 多孔質材料의 표면에서 공기의 압력이 시시각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됨에 따라 공기는 气孔 속으로 流入되거나 流出되어, 한정된 气孔속의 공간에서 운동하는 공기분자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마찰이 일부 音 에너지를 열로 전환시키게 되는 것이다.

吸音材란 말 그대로 吸音用으로 사용되는 材料로서 그吸音機構에 따라 多孔質材, 共鳴吸收材料, 板共振 또는 膜共振吸收材料로 나누어 지고 그 特性은 吸音率로 表示되고 音이 전혀 吸收되지 않을 경우 (이는 실제로는 있을 수 없다)를 0, 音이 전부 흡수될 경우를 1로 하여 각 재료의 吸音率이 정해 진다.

### 3.2 遮音

일반적으로 遮音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즉 空氣伝途音遮音과 衝擊音遮音이다. 空氣伝途音遮音은 공기중에서 發生하는 騒音 즉 목소리와 같은 것의 遮音에 관계되고 衝擊音遮音은 발자국 소리와 같은 충격음에 관계된다.

遮音의 정도는 音의 周波數와 壁의構造에 좌우되며 무엇보다 重量에 의해 정해진다. 이것은 소위 質量法則 (mass law)에 해당하며 이것이 크게 벗어나는 ( $\pm 2 \text{ dB}$ 이상) 경우는 거의 없다.

또 遮音은 不透過性에 좌우되며 多孔質 블록壁을 미장 등을 하지 않아 气孔이 막혀 있지 않을 경우에는 音이 气孔을 통해 새어 나가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 다음은 剛性이다. 그러나 �剛性은 언제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遮音性能의 평가방식은 音의 투과손실의 程度에 따른 「音響透過等級」 (STC : Sound Transmission

Class)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카나다 「주택 기준」에서는 최저기준을 STC 45로 하고 있으며 최고한도는 대략 STC 55 정도이다.

### 3.4 騒音調整의 通則

騒音調整은 騒音源 (Noise Source) 騒音聽取者 経路等 세 가지 要素를 함께 생각할 수 있다.

経路에는 機械와 그 근처의 사람과의 단순한 空間일수도 있고 室內의 사람과 비행기와 같이 屋外의 空氣層 지붕, 벽, 창, 室內空氣로 이어지는 복잡한 것도 있다. 騒音源은 屋内 또는 屋外에서 있을 수 있으며 여기서는 騒音의 聽取者가 항상 屋内에 있는 것으로 한다.

騒音源은 等方向性 또는 偏方向性을 가지는데 室內騒音源의 경우에는 音의 発散方向如何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屋外의 경우는 騒音源의 方向性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 騒音問題는 항상 周波數로서 생각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音源, 経路, 청취자에 미치는 効果가 모두 周波數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 4. 外部 騒音의 防止策

### 4.1 外部 騒音의 行態

#### (1) 方向性

騒音源이 가질지 모르는 方向性은 外部騒音의 경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제트엔진 (jet engine)은 그 대부분의 低周波數 騒音을 噴射軸線에서 약 30°의 角으로 放射한다 따라서 만일 분사추진기관으로 부터의 소음을 측정한다면 그 엔진 주위의 여러 곳에서 측정을 해야만 完全한 状況圖를 얻을 수 있다.

#### (2) 거리

거리에 따른 騒音의 감소를 결정하는 첫째 要因은 逆제곱법칙이다. 즉 거리가 2倍씩 증가됨에 따라 6 dB程度가 감소된다. 두번째 要因은 空氣에 의한 分子吸音이다. 1.000 Hz 이하의 주파수에서는 分子吸音이 다른 모든 減衰要因들 보다 우세하게 작용할 때가 흔히 있다.

#### (3) 바람

音이 단순히 바람을 거슬러 전파되기 때문에 減衰된다 는 생각은 바람의 變化度를 생각하지 않은 잘못된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밑에서 부는 바람은 그 上部의 바람만큼 빠르지 못하며 이는 밑에서 바람을 안고 전파되는 音이 上部보다 더 빨리 이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音波는 그림과 같이 회개되어 B부근에서는 다른 때 보다 그 에너지가 더 적게 된다.

#### (4) 온도

온도의 變化도 바람과 유사한 効果를 나타낸다. 그 이유는 音의 速度가 温度의 증가에 따라 더 증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공기의 温度가 上層部보다 地面 가까이에서 더 높은 경우(보통屋間)는 地面에서 부터 높은 위치에 있는 音波는 더 느리게 전파하게되어 音線은 윗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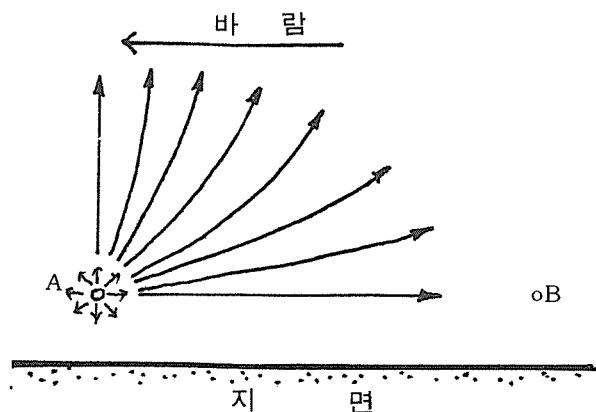
으로 휘게된다. 따라서 音源의 주위에서는 温度变化가 없을 때 보다 더 조용하게 된다. 반대로 温度가 上層部에서 보다 地面가까이에서 더 낮을 때 (보통 야간)는 높은 위치의 音波가 더 빠르게 전파되므로 音線이 地面쪽으로 휘게되어 音源주위의 온도변화가 없을 때 보다 더 크게 들리게 된다.

#### (5) 안개와 눈

안개와 눈의 효과는 별로 중요한 요소는 되지 못하지만 안개는 加外의 吸音을 일으키며 눈은 地面에 吸音面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은 또 地面反射波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먼 거리의 音레벨을 저하시킨다.

#### (6) 地面

音源과 受信点이 地面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位置에 있을 때는 지면에서 반사되는 音波가 중요하게 된다. 예를 들면 단단하여 反射性을 가진 다든가 또는 부드러워서 吸音性을 가진 다든가 하는 地面의 性質은 反射音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地面反射의 정확한 효과는 몹시 복잡하여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콘크리트와 같은 단



단한 지면은 加外의 減衰를 일으키지 않으나 牧草와 같은 지면은 加外의 減衰를 일으킨다는 사실만은 밝혀 둔다.

樹木地帶는 어느 정도 音의 減衰를 일으키지만 바람의 变化度에도 역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附加的 減衰를 中和시켜 버리는 수도 있다.

#### (7) 그외의 장애물

벽체와 같은 장애물은 당연히 音의 伝播를 줄이게 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장애물이 상당한 효과를 가질려면 그 크기가 音의 波長에 비해서 크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면, 만일 100 Hz의 소음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波長은 3.3m가 되며 따라서 이 소음을 막기위한 벽체는 音源이 이 벽에서 3m 떨어져 있을 경우 약 20dB 정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약 7.6m 정도의 높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물 주변끝에서의 音波廻折, 壁体上部의 空氣散乱 및 地面減衰의 不完全等의 이유로 遮音效果의 完全을 기하기에는 制限을 받게 된다.

屋外에 노출된 面들도 屋内面과 같이 音을 反射하거나 吸收하게 된다. 屋外에 사용하는 材料는 거의 모두 단단하고 딱딱하여 反射性을 가지나 때때로 吸音性을 가진 外部面을 만드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다.

#### 4.2 外部騒音의 防止策

外部騒音에 대해서는 計劃 단계에서부터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計劃이라 함은 基地選定에서부터 건물 및 그 周辺과 道路等의 設計를 포함하여 平面과 斷面上의 여러 부분적인 것까지도 포함된다.

外部騒音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면 도움이 된다.

1) 基地選定時에는 되도록이면 주거지역을 택하고 공장이나 간선도로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택할 것.

2) 建物을 가급적 騒音源으로부터 멀리 配置할 것.

3) 언덕, 도로측면 또는 다른 건물을 防壁으로 利用할 것.

4) 나무나 덤불은 음향을 다소 흡수하기는 해도 防壁으로서는 별 효과가 없음에 유의할 것.

5) 북도, 주방, 욕실, 에레베타, 설비공간등과 같이 덜 중요한 부분을 소음이 많은 쪽에 그리고 침실, 거실 등 주요한 부분을 조용한 쪽에 배치할 것.

6) 騒音源과 면한 外部窓에 특히 유의할 것 (内部騒音防止等 참조)

#### 5. 内部騒音의 防止策

##### 5.1 内部騒音의 行態

室内에서 騒音源이 操作될 때 임의 지점에서의 騒音レベル은 두 가지 成分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直接音, 즉 音源으로부터 그 지점에 직접 전파되는 音이고, 둘째는 余韻音 즉 室内面에서 여러번 反射된 다음 도달하는 音이다. 直接音의 세기는 音源으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저하되는데 그 거리가 2倍씩 될 때마다 6dB씩 떨어진다. 반면에 余韻音의 세기는 室의 全内部를 통해 균등하게 된다. 騒音源 가까이에서는 直接音이 우세하겠지만 音源으로부터 먼 곳에서는 余韻音이 우세하게 된다.

室内의 直接음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방법은 불가능하다. 직접음에 대한 조치로서 일반적으로 칸막이가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특히 騒音源이 偏方向性을 가질 때 유효하다. 만약 칸막이가 騒音源에 面한 쪽이 吸音体로 되어 있다면 이 面에 부딪치는 直接音은 주로 吸收될 것이고 따라서 余韻音을 일으키지 못하게 된다. 더우기 벽뒤에 있는 사람은 직접음으로부터 보호된다.

주어진 騒音界에서 그 세기는 室内에서의 吸音量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音響調節天井설치等과 같이 吸音量을 증가시킴으로써 余韻音의 세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余韻音의 레벨을 3dB 줄이기 위해서는 吸音量을 두배로 늘여야 한다.

## 5.2 内部 騒音의 防止策

### (1) 平面計画

① 아파트에서 부엌이나 욕실등을 동일 수직상에 오도록 한다.

② 아파트의 각戸를 重尽式으로 하여 침실을 아래층에 두면 바닥에서 오는 충격음을 막을 수 있다. 물론 가구자체 내에서의 충격음을 막을 수는 없으나 그것은 자신들의 문제로 한정이 된다.

③ 침실 거실등은 반침, 계단, 홀, 주방등을 완충지대로 하여 옆 가구로 부터 격리되도록 한다.

④ 한 가구의 소란한 방과 옆 가구의 조용한 방을 붙여놓는 것은 되도록 피한다.

⑤ 주방이나 욕실의 給排水管등은 주방과 욕실을 이웃끼리 맞대고 아래 위로 같은 위치에 오게 하여 배관을 그사이의 벽속에 넣어 침실이나 거실과 격리시켜 준다.

⑥ 보일러, 펌프, 공기 압축기, 환풍기, 및 세탁설비등을 침실로 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다.

⑦ 취침 공간과 생활공간은 되도록 분리시킨다.

⑧ 개방적인 평면에서는 적절한 공간배치와 흡음재의 사용등으로 가급적 소음을 줄이도록 한다.

### (2) 窓

창은 소음방지면에서 볼 때 외벽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창의 遮音性能은 気密性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소음방지면에서만 볼 때는 불박이 창이 여닫이 창보다 더 효과적이다. 遮音性能面에서 볼 때 불박이 홀 유리창은 여닫이 겹 유리창과 대략 비슷하다.

대부분의 불박이 겹 유리창은 STC 30에서 STC 35의 범위이며 유리사이의 간격이 커짐에 따라 증가한다. STC 40이상을 내기 위해서는 유리 간격이 최소한 20cm 가 돼야 하나 그 간격이  $\frac{3}{4}$ 인치보다 크면 단열에 효과가 없으므로 실용적이 못 된다.

이상을 요약하면

- ① 소음이 많은 쪽에는 창을 최소로 낼 것.
- ② 騒音源과 면한面은 가급적 불박이 창으로 할 것.
- ③ 여닫이 창은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공기 틈새를 줄일 것.

### (3) 門

일반적으로 문은 各室간의 騒音防止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따라서 음향면의 독립성은 이에 따라 좌우된다. 일반문은 보통 STC 15~20 정도이므로, 속을 채운다든지 틈막이 재를 설치하면 도움이 된다. 틈막이는 문을 단을 때의 충격음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등의 각 家口의 출입문에는 특히 도움이 된다. 특히 통로에 면한 문들은 가능한 한 防音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壁

벽의 防音性能은 不透過性, 重量, 剛性에 따라 달라진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중량이 2배가 되면 투파손실은

5dB정도 증가한다.

단위중량이 같은 조적벽은 그것이 한 겹일 때보다는 中空壁일 때가 성능이 더 우수하다. 이러한 벽체는 밀폐된 공간에 의해 결합된 두 겹의 벽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벽을 鉄物등으로 연결시키면 효과가 적어지므로 연결물은 가급적 적게 사용하고 연결재는 비교적 신축성이 있는 것이 좋고 흡음재를 그 사이에 끼워 넣으면 防音性能이 좋아진다.

### (5) 바닥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공기전파음에 대한 저항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중량, 강성, 음향통로의 断切 및 절연등이나 바닥을 통한 충격음의 전달은 문제를 하나더 추가시키는 것으로 물체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바닥이 진동하게 될 때 일어난다. 이 소음은 바닥구조를 통해 전달되고 그 아래에 있는 방으로 전파된다. 이러한 소음은 공기전파음보다 더 많은 불평을 유발하게 된다.

충격소음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카페트와 같은 부드러운 것을 바닥에 까는 것이다. 카페트보다는 못 하지만 콜크타일도 유용하다. 그 밖에 소위 탄력성이 있는 바닥재인 비닐, 리노륨, 고무타일등은 충격소음의 防止에 별 도움이 되지 못 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바닥면을 띠우는 것이다. 즉 섬유판과 같은 탄력성이 있는 재료를 사이에 넣어 마감바닥을 구조체로부터 격리시킨다. 또는 반자를 구조체와 다소 떨어지게 설치하고 방음재로 천정을 한다. 이러한 구조에다 그 공간에 흡음 절연층을 설치하면 충격소음을 더욱 줄일 수 있다.

### (6) 설비계통의 소음

일반적으로 설비계통으로부터 생기는 소음은 진동이나 충격소음 또는 공기전파 소음이다. 이러한 騒音은 환풍기, 발동기, 펌프와 같은 기계설비내에서 나는 수도 있으며 닉트내의 공기흐름 또는 급 배수관속의 물의 흐름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거기에다 닉트는 그 자체가 한방에서 다른 방으로 소음을 옮기는 통로 구실을 한다.

### ④ 機器騒音

機器騒音은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줄일 수 있다.

- ① 機器는 가능한 한 침실등으로 부터 멀리 둘 것.
- ② 機器를 防音構造로 둘러싸거나, 또는 복도, 계단실 창고등의 완충지대를 두어 소음을 가두도록 할 것.
- ③ 흡음재를 機器의 外皮에 염 것.
- ④ 탄력성이 있는 밀발침을 써서 기기를 구조체와 격리시킬 것.
- ⑤ 기기와 그에 접속되는 닉트 또는 급수관 사이에는 신축성 있는 연결 장치를 쓸 것.

### ④ 管内の騒音

소음은 管內에 물이 흐를 때도 생긴다. 風流에 의한 騒音 및 管의 진동이나 온도변화로 인한 판의 수축 및 팽창에 따라 지지물에서 소음이 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배관계통내의 소음을 다음과 같이 하면 騒音防止에 효과가 있다.

- ① 수압을 줄인다.
  - ② 관의 크기를 늘린다.
  - ③ 부속기구 특히 빨리 잡겨지는 개폐변의 사용을 가급적 적게 한다.
  - ④ 탄력성이 있는 防衝材로 배관 및 고정장치들을 구조체와 격리시킨다.
  - ⑤ 배수관은 조용한 구역의 벽으로부터 멀리 둔다.
  - ⑥ 水擊을 규제하기 위해 공기실을 만든다.
  - ⑦ 管의 팽창 및 수축에 대비한다.
- ⑧ 닉트내의 소음
- ① 닉트의 방음벽 관통을 최소로 하고 가급적 소란한 장소를 통과하지 않도록 배열한다.
  - ② 닉트내부에 섬유질 등의 방음재를 댄다.
  - ③ 닉트는 굴곡을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완만하게 한다.
  - ④ 機器振動이 닉트에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伸縮接管의 사용을 고려한다.
- (7) 조합한 시공으로 인한 방음성능의 감소.
- 조합한 시공으로 인한 방음성능의 감소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조적조의 출눈이 꽉 채워지지 않은 경우.
  - ② 벽과 바닥의 연결부분에서의 잘못.
  - ③ 방음층을 통과하는 금속재 (못이나 볼트)

- ④ 콘센트등을 서로 맞대어 설치
- ⑤ 방음벽을 통과하는 배관, 닉트 또는 전기배선 주위의 틈새를 메우지 않음.
- ⑥ 방음벽의 구멍.
- ⑦ 창틀이나 문틀 사이의 틈등.

## 6. 結 言

이상과 같이 住居建物에서의 内外部 騒音防止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防音을 하고자 하는 室과 騒音源과의 거리를 떨 수 있는 한 많이 확보 한다.
- ② 利用可能한 防壁(언덕이나 다른 건물등)을 최대로 利用한다.
- ③ 騒音源과 面한 窓이나 間에 특히 유의한다.
- ④ 침실이나 거실은 騒音源 反對側에 配置한다.
- ⑤ 用途가 비슷한 室은 되도록 한 곳에 모운다. (平面적으로나 立体적으로)
- ⑥ 반침이나 주방등을 옆 家口와의 완충지대로 利用한다.
- ⑦ 벽이나 바닥은 가능한 한 防音構造로 할 것.
- ⑧ 설비계통은 되도록 한 곳에 모아 防音構造로 구획 할 것.
- ⑨ 防音構造의 施工에 유의 한다.

## 参考文献

- ※建設研究所資料(No.265)：“建築物의 音響設計”(1975)
- ※建設研究所資料(No.289)：“주거건물내의 소음방지”  
(1975)
- ※日本環境庁編：“環境白書”  
(1973)
- ※吉田重康：“建設工事の 公害対策”(1973)
- ※AN ARCHITECTURAL RECORD BOOK：“ENVIRONMENTAL CONTROL”(1965)
- ※朝倉書店：“建築設備ハンドブック”(1967)
- \*オーム社：“建築計画”  
(1974)